

# “광주 유치원 비리 수사·세무조사 속도내야”

### 유치원 비리 첫 공개 박용진 의원, 광주지검·국세청 조사 촉구 시교육청 감사 40건 비위 적발...광주국세청 “절차대로 처리중”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광주지역 유치원의 비리와 탈루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3일 ‘광주지검 및 광주국세청의 철저수사 촉구’라는 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들의 리베이트 의혹·예산 편취 등 비위사실에 대한 광주지검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탈루 의혹을 받는 유치원들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거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에 대한 사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탈세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과세당국과 수사기관에 세

무조사 및 수사의뢰(광주일보 2019년 3월 14일자 7면)를 했는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따른 행동으로 분석된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시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치원 15곳, 학부모 사기 의혹을 받는 유치원 10곳을 검경에 고발하고, 탈세 의혹이 짙은 유치원 19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총 40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수사 및 세무조사를 했으나 수사와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자료에서 가짜이나 교사 등 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곳만 4곳, 액수만 최소 5억48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10곳으로 10억9700만원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다. 업체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15개소, 액수로는 8억7000만원이다.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는 유치원에서 여럿이다. 광주 A유치원은 유치원 예산으로 체험활동비를 지출했는데도 학부모들에게 별도로 체험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B유치원은 교비로 사진 인화비 900만원을 지출 처리했는데도, 학부모들을 속여 900만원을 받았다. 또 리베이트 수수 의심 사례로 파악된 유치원은 2곳, 금액은 8000만원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아이들에게 써야 할 급식비로 한우판매장에서 돈을 쓴 사례, 지인 축의금을 교비로 낸 원장,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까지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교비로 낸 사례도 발각됐다.

박 의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국감 이후 교육청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건이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기는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엄정한 대응을 발표한 정부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3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을 기록한 전시회에 베트남 피해자인 2명의 응우옌티탄(동명이인)이 사진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베트남 민간인 학살 마을 생존자 참석 한국정부 진상조사 촉구

### 고경태 기록전 ‘풍니·퐁닛’ 개막

1980년 광주와 1968년 베트남이 만났다.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기록한 고경태 기록전 ‘한마을 이야기-풍니·퐁닛’이 5·18 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3일 개막했다.

이날 오프닝에는 제주4·3평화상 특별상 수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풍니·퐁닛 사건 당시 생존자인 응우옌티탄과 하미마

를 피해자 응우옌티탄(동명이인)이 참석해 수상소감과 함께 ‘학살의 그 날’을 증언했다.

이들은 “제주4·3평화상 수상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며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생존자이자 목격자이며 내뿜은 그날의 상처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주둔지였던 풍

남성 풍니·퐁닛 마을의 학살 50주기를 기억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기록전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록전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 5·18 기념재단,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한·베평화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광주인권평화재단이 후원했다.

/정병희 기자 jusbh@kwangju.co.kr

## 동행단과 안전한 심야귀가

### 광주 북구 30명 동행단 발족

광주시 북구는 “4일 발족식을 갖고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여성 심야귀가 안전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북구 여성 심야귀가 안전동행’ 사업은 강력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을 안전동행 대원이 심야 귀갓길에 안전하게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사업이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동행대원은 1일 2개 조(2인 1조)로 평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사전·당일 동행 요청한 신청인을 30분 전 지정장소에서 만나 귀가를 돕는다.

안전동행 대원은 ▲ 범죄 취약지역, 골목길 상시 순찰 ▲ 위급상황 시 관할 지구대와 연계한 신고·대처 등 밤길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도 수행한다. 북구는 용봉동을 중심으로 매곡동과 오치동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향후 점차 지역을 넓혀 안전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통한 여성 안심귀갓길 사업도 추진 중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동행은 안전동행 대장(010-4745-2279, 010-5217-4910)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안전동행 사업 기타사항은 북구청 여성가족과(062-410-64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6 해질 18:56 달뜨기 05:56 달지기 17:52

### 산불 조심

대체로 맑고 대기 매우 건조하겠다.

광주	맑음	2/18	보성	맑음	-1/17
목포	맑음	4/15	순천	맑음	4/19
여수	맑음	6/17	영광	맑음	-1/16
나주	맑음	-1/18	진도	맑음	2/14
완도	맑음	4/17	전주	맑음	1/18
구례	맑음	-1/19	군산	맑음	2/14
강진	맑음	0/17	남원	맑음	-3/18
해남	맑음	-2/16	흑산도	맑음	6/15
장성	맑음	-2/18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남서	1.0~1.5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1.0~2.5
완도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0.5~1.5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1.0~1.5	남서~서	1.0~2.0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01	01:40
19:24	14:05	
여수	02:34	08:58
	14:57	21:05

### ◇ 주간 날씨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	☀	☁	☀	☀	☀	☀
6/18	4/20	9/19	6/16	5/18	7/18	7/18

### ◇ 생활지수

- ☀ 높음
- ☁ 뇌출중
- ☀ 매우 높음
- ☀ 감기
- ☀ 보통
- ☀ 미세먼지

##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덩어리...1일 섭취량 70% 함유

간편하고 저렴한 한 끼 식사로 인기를 끄는 편의점 도시락에 과도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개를 먹었을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2000mg 미만)을 넘길 만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도시락도 있었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해 7~9월 CU(씨유), GS 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ストップ 등 편의점 5개사의 도시락 15종을 대상으로 가격과 영양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15개 도시락의 100g당 나트륨 검출량은 219~521mg으로, 평균 335mg으로 조사됐다.

도시락 15종의 평균 중량(416g)에 g당 나트륨 평균량(3.35mg)을 곱하면 도시락 한 개에 평균 1393mg의 나트륨이 포함됐다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이 같은 평균치는 WHO의 하루 섭취 권고량의 69.6%에 해당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의 도시락 15종을 대상으로 가격과 영양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환경운동연합 ‘무등산 자연지기’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어린이 대상 자연체험프로그램 ‘자연나들이-무등산 자연지기’ 참가자를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일대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로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는 ‘무등산 깃대조 관찰’ (4월14일), ‘숯 트래킹’ (5월26일), ‘저서생물·수서곤충 관찰하기’ (6월23일) 등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 신청란을 이용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경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 시군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주 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주)성광에너지**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